

우리 살아난 생각 하문 이식하여...

북촌 이군죽 할머니

등록 : 2010년 01월 26일 (화) 19:00:54
최종수정 : 2010년 01월 26일 (화) 19:00:54

고미기자 ✉ popmee@hanmail.net

4·3 때 남편 잃고 75세까지 바다에 '다려도가 남편이나 마찬가지로' 일본·청진 등에 바깥 물질도 나가... '장한 어머니'로 표창장 수상

90을 훌쩍 넘긴 노장녀의 작고 둥그스름한 어깨에서 쉽게 눈을 떼 수가 없다. 켜켜이 쌓인 세월의 더께만큼이나 고달팠을 지난날을 무거운 짐처럼 내려놓지 못한 그 어깨다. 그저 가만히 감싸 안고 싶은 어깨지만 좀처럼 손이 나가지 않는다. 너무 늦게 찾아온 것은 아닌지 하는 죄책감과 아쉬움때문이리라. 4·3이 휩쓸고 난 뒤 '여자 마을'이라 불렸던 북촌의 잠녀들에게 바다는 삶터 그 이상이었다.



▲ 조천읍 북촌리 바닷가에서 수십명의 잠녀들이 공동작업을 하는 가운데 배에 탄 남성들이 잠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을 건져내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발췌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

이군죽 할머니(96)와의 인연은 '해녀 닻돌'에서 시작됐다.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형태의 것이 있다"며 기증 의사를 밝힌 황요범 전 교장이 건넨 작은 책자와 어머니가 직접 만들었다는 닻돌은 한평생 바다를 떠나지 못했던 이 할머니와의 연결고리가 됐다.

닻돌은 망사리의 아랫부분이나 태왁 망사리 테두리에 매다는 돌멩이로 작업하는 동안 태왁망사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닻의 역할을 한다.

황 전 교장이 기증한 닻돌은 어머니인 이 할머니가 신설란이나 미로 꼬아 만든 닻줄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망사리와 닻돌을 연결하는 닻줄은 대개 잠녀가 작업하는 수심보다 길게 만들었다. 물결의 흐름으로 줄이 사선으로 흐르는 것을 감안, 15~20m로 길게 늘어뜨린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로이다.

75세까지 바다에 나가셨다는 이 할머니는 1913년생, 올해 나이로 96세가 됐다.

'매기무덤-황요범 4·3 참회록' 속 이 할머니는 4·3에 휘말려 남편과 시동생, 시아버지를 한꺼번에 잃은 상황에서도 두 살배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 김녕으로 몸을 피했고, 또 물질을 하며 자식을 키워낸 근현대사의 산증인이다.

하지만 노인당에서 직접 만난 이 할머니는 지난 기억이 즐겁지만은 않은 눈치였다.

함께 식사를 하는 20여명의 노인 중 할아버지는 단 한 명 뿐이었다. 4·3으로 인한 생채기가 컸던 북촌의 단면을 보는 듯해 기분이 착잡해졌다.

이 할머니는 "그 때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졌는지 모르겠다"며 이내 말을 거두셨다.

숙명처럼 시작한 물질에 의지



▲ 이군죽 할머니

북촌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에게 물질은 숙명과 같은 일이었다. 다려도가 있던 까닭에 잠녀 수도 많았다.

이 할머니 역시 누가 가르쳐준 것은 아니지만 ‘알아서’ 물질을 배웠다. 어른들의 어깨너머로 훔내만 내던 것이 14살부터는 제법 제몫을 했다. 이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태어난 여자들은 누구나 물질을 했다”며 “당시 잠녀수가 출잡아 200명 정도는 됐다”고 회상했다.

4·3배기에는 쉽게 입을 열지 않던 이 할머니였지만 물질 얘기에는 이내 눈빛이 달라졌다.

17살에 결혼을 한 뒤에도 물질은 계속됐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본 바깥물질도 나갔다.

이 할머니는 “19·20살에는 도쿄에서 물질을 했다”며 “김녕 사람들이 물질할 잠녀를 모집해서 북촌에서도 17명이 일본에 건너갔다”고 말했다.

당시 일본까지 교통수단은 배가 전부였다. 군대환(기미가요마루)이니 조룡환이니 귀에 익숙한 이름 대신 경성환을 타고 일본 시즈오카에 간 이 할머니의 일행은 김녕 잠녀를 포함, 28명이나 됐다.

정월 바다는 제주나 일본이나 차갑기는 마찬가지다. 이 할머니 일행이 작업을 위해 머물렀던 시즈오카는 ‘텐구사’라고 부르던 우뚝가사리의 산지였다. 공물로 바칠 정도로 귀하게 여겼던 전복은 바다를 사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함부로 작업할 수 없었다.

이 할머니는 사람 주먹보다 큰 소라와 우뚝가사리, 천초, 도쿄부시라고 부르는 오분자기 작업에 참여했다.

이 할머니는 “3월부터 8월까지 작업을 하는데 오분자기가 어찌나 쨍쨍지 손이 빠르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었다”며 능숙하게 작업을 하던 일본 아마들의 모습을 기억해냈다.

간신히 잡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또 낚선 곳에서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작업을 했던 그 때를 ‘내 생애에 있어 가장 즐거웠던 때’로 기억했다.

“우리 살아난 것 생각허문 이식허여(아득해), 일본 있을 땐 오히려 걱정이 없었지, 돈도 안 기리고, 못도 안 기리고…”

한 집에 15명씩 생활을 하면서도 불편한 것을 몰랐다. 하지만 물질을 하고 번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차비다 집세, 생활비를 하다보면 막상 버는 돈은 2할이 채 안됐다”는 이 할머니는 “일본 사람들은 어찌나 계산이 분명한지 물건 값을 계산할 때도 모집비 명목으로 꼬박꼬박 1할을 제했다”고 말했다.

이 할머니의 일본 물질은 외동딸의 바깥 물질을 걱정했던 아버지가 거짓으로 보낸 ‘임종 임박’편지로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후 22살에는 배를 탔던 오빠를 따라 청진에서 물질을 하기도 했다. 4~9월 솜이며 성계를 작업했다. “그 곳 바다에는 성계 말고는 작업할 게 없었다”고 운을 뗀 이 할머니는 “열 두말짜리 통에다 성계를 까서 저장해 두었다 팔면 돈이 됐다”며 “간 성계는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오빠들이 배에서 잡은 정어리는 가마솥에 삶아 기름을 짠 뒤 기계용이나 영양제 원료로 넘겼다”고 말했다.

역경을 넘어 ‘장한 어머니’로 남다

4·3으로 남자 가족을 모두 잃은 이 할머니는 역시 홀로된 시어머니와 각기 다른 바다에서 작업을 했다. 그렇게 15년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여자 혼자 몸으로 자식 뒷바라지에 가게를 지탱하는 일은 힘겨웠다. 의대 진학을 원했던 아들을 설득해 교육계에 몸담게 했던 것도 ‘돈’때문이었다. 어머니를 오래 지켜봐왔던 아들은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올곧게 교직 생활을 했고 ‘인성 교육’을 실천한 이 시대 스승으로 정년퇴임을 했다.

그런 이 할머니에게 표창패며 장한 어머니상이 주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내 삶에서 바다는 가장 큰 의지였다”는 이 할머니에게 다려도는 이어도와 같은 곳이다. “나만이 아니야. 혼자 생계를 꾸려야 했던 잠녀들에게 다려도는 ‘의지할 남편’이나 마찬가지로거든. 그렇게 험하게 살아도 목숨줄 만큼 질긴 게 어디 있어. 그러니 이어도를 생각할 수밖에 …”